

돈황사본 『仁王般若實相論卷第二』의 기초적 연구

이상민
(고려대)

국문 초록

본고는 돈황사본 『인왕반야실상론권제이』(이하 “『인왕실상론』”)의 문헌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논자가 기존에 제시했던 가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정장본에 수록된 『인왕실상론』은 실제 사본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교정표를 작성하였으며 중복 내용을 제외하면 총 110건의 교정 건을 확인하였다.
- 2) 『인왕실상론』에서 주석하고 있는 『인왕경』의 경문을 현행본 『인왕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경문이 나타난다. 이는 『인왕경』 또한 전승 과정에서 텍스트의 변천이 있었거나 북조에서 유통되었던 또 다른 형태의 『인왕경』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3) 『인왕실상론』은 십지(十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십지경론』이 아닌 『십주비바사론』과 『보살영락본업경』을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다. 적어도 현존 부분에서는 『십지경론』에 대한 직접 인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4) 『인왕실상론』의 인용경론군은 또 다른 지론문헌인 『십지론의소』의 인용경론군 안에 대부분 포함된다. 특히 『우바세계경』과 『십주비바사론』을 함께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현존 지론문헌 중 『십지론의소』와 『인왕실상론』뿐이다. 또한 『인왕실상론』에는 『십지론의소』와 동일한 자구의 개념 해석도 등장하는데, 이 또한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왕실상론』과 『십지

론의소』 사이에 모종의 사상적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 5) 『인왕실상론』은 『십지경론』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지론학과에서 형성된 교학적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삼신(三身)”과 “삼종세간(三種世間)”이라는 지론학과의 교학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 『인왕실상론』은 지론학과의 영향하에 성립된 문헌임이 입증되며, 당 문헌을 지론학과 성립 이전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했던 논자의 기존 가설은 폐기한다.

주제어: 『인왕반야실상론』, 『인왕경』, 『보살영락본업경』, 『십주비바사론』, 돈황 사본, 지론학과

I. 서론

본고는 돈황사본으로 전해지는 『인왕반야실상론권제이(仁王般若實相論卷第二, 나카무라 후세츠中村不折1866-1943) 구장舊藏 문헌. T85 no.2744 수록, 이하 “『인왕실상론』”)』의 문헌적, 사상적 특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인왕실상론』은 모두 341행¹⁾이 현존하는 단편(斷片)이다. 전반부가 결락되어 있으나 후반부의 식어(識語) 부분까지 남아 있어 “仁王般若實相論卷第二”이라는 미제(尾題)와 “顯秀(현수)”라는 필사자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²⁾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세기 경 북조에서 찬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설인왕반야바라밀다경(佛說仁王般若波羅蜜多經,

1) 未題 및 識語 아래에 수행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구가 서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金光明最勝王經品以 以以此轉以此轉經功德並將廻施一切衆生四生九類水陸飛空一切有情捨重類身各橫世位誰若者口皆以 以以此轉經功並將廻施一切衆生四生九類水陸飛飛天福誰衆生 以以此轉以此轉經功德並將將廻施一切衆生 以以此轉經功德並將廻施一切衆生四生九類水陸飛空一切有情 以以此轉經口 以以此轉” 해당 구절은 703년 義淨에 의해 번역된 『金光明最勝王經』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사본의 필체와 같지 않다는 점, 반복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글이 서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본 문헌과는 별개로 후대에 해당 사본에 추가적으로 서사된(아마도 글씨 연습의 흔적?) 것으로 간주하여 총 행수 계산에 넣지 않았다.

2) “仁王般若實相論卷第二. 依本校竟. 比丘顯秀寫流通後代化不絕.”(339-341행, T85.166a) 이하 『인왕실상론』의 인용은 사본의 행수와 대장장의 대응 부분을 병기한다.

T8, no.246, 이하 “『인왕경』”)의 주석서로, 현존 문헌의 주석 부분은 당 경전의 권2 후반 부에 해당하는 제6 「산화품(散華品)」부터 제8 「축루품(囑累品)」에 대응된다. 다만 『인왕실상론』과 동일한 텍스트로 비정할 수 있는 경록(經錄)의 구절, 현수라는 승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기에 해당 문헌의 시대를 확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남북조 시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왕경』의 주석서 일문(逸文)들은 대개 경전의 전반 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인왕경』 주석서 간의 비교 또한 용이하지 않다.³⁾

『인왕실상론』은 일찍부터 대장장 권85에 수록되어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⁴⁾ 논자는 최근 연구에서 또 다른 돈황사본인 『본업영락경소(本業瓔珞經疏, Stein no.2748, T85 no.2798)』를 분석하면서 당 문헌과 『인왕실상론』 간에 유의미한 상응구절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두 문헌이 동일한 그룹에서 저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본업영락경소』가 지론학파의 소의경론인 『십지경론(十地經論, T26 no.1522)』을 다대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왕실상론』에는 『십지경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문헌을 지론학과 이전의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⁵⁾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문헌의 성립 순서는 『인왕실상론』 → 『본업영락경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문헌의 성립 순서에 대한 논자의 가설은 잘못되었다. 이 가설은 『인왕실상론』에 지론학파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학적 개념이나 인용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한다. 다시 말해 만약 해당 문헌에서 지론학파의 특징적인 교설이 언급된다면 그의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자가

3) 남북조 시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왕경』 주석서로는 『仁王疏(BD06378)』, 개황(開皇) 19년 서사 『仁王經疏(S.2504, T85 no.2745)』 등이 있다. 후자의 문헌에 대해서는 정영사 혜원(慧遠)의 찬술설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오카모토는 岡本一平 2010에서 『인왕경소』를 혜원의 찬술로 비정하였으나 池田將則 2013, 199에서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고 다시 오카모토가 岡本一平 2017, 605-606에서 해당 문제를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며 일단락 되었다.

4) 『인왕실상론』에 대한 논의는 矢吹慶輝 1980(1930), 93-94의 기초적인 서지 정보, 그리고 妻木直良 1926; 石井公成 1996, 516-517; 이상민 2018, 72-76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상민 2018, 75-76: “그렇다면 두 문헌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①, ② 모두에서 『본업경소』의 내용이 『인왕실상론』보다 자세하고 완전한 형태라는 점에 의거한다면, 『인왕실상론』의 해석을 증보한 형태가 『본업경소』로 보는 것이 가능할 듯하다. (중략) 물론 반대로 『본업경소』의 자세한 설명을 『인왕실상론』에서 축약된 형태로 거칠게 인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중 논자는 전자가 두 문헌 간의 선후관계에 더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그런데 인왕실상론에는 본업경소 등에서 보이는 오문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지론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는 십지경론에 대한 기술도 전무하다. (하략)”

기존의 연구에서 미처 참조하지 못했던 이시이의 연구에서는 이미 『인왕실상론』에 나타난 지론교학의 일단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는 본 문헌이 “‘지론중남도파’로 대표되는 여래장사상에 입각하여 십지(十地)의 연구가 성행한 시대의 풍조 가운데 성립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다”⁶⁾고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해당 사본의 몇 구절을 제시했는데, 그중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의 구절이다.

“삼계의 중생을 위하여”란 이타행 가운데 진실연집(眞實緣集)을 일으킴이다.

「爲三界衆生」者, 利他行中起眞實緣集.(324-325행, T85.165c)

“진실연집(眞實緣集)”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연집(緣集)”이 『십지경론』에 나타난 “인연집(因緣集)”의 축어 형태로 제시된 지론학파의 독특한 술어라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다.⁷⁾ 따라서 해당 문헌에 연집 사상이 언급되는 한 『인왕실상론』이 지론학과 성립 이전 저술되었을 것이라는 논자의 추정은 근거를 잃는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왕실상론』 또한 지론학파의 저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특징들을 제시할 것이다.

II. 사본의 교정

『인왕실상론』은 대정장에 수록되어 있으나 적지 않은 오류로 인해 해독의 어려움이 있다. 해당 사본의 이미지는 별도의 도록(圖錄)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아래에서는 먼저 교정표를 제시한다.⁹⁾

6) 石井公成 1996, 517.

7) 青木隆 1987, 2000, 2010 참조.

8) 磯部彰(編) 2005, 186-192. 당시의 이미지는 센슈대 사토 아츠시 선생으로부터 제공받았다. 해당 이미지를 보내주신 사토 선생의 학문에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9) 『인왕실상론』의 또 다른 필사본으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양사본 연구소 소장 돈황사본 D_x01777(『俄藏敦煌文獻』8, 342 수록, 22행 현존)이 있으나, 세 군데의 자구적 차이(法滅之相: 『인왕실상론』 294행→ 滅法之相: D_x01777 4행, 是以滅法: 『인왕실상론』 306행→ 是以法滅: D_x01777 15행, 誠勸: 『인왕실상론』 309행→ 戒勸: D_x01777 18행)를 제외하면 당 교정표에 특기할 만한 두 부분을 확인하였다.

D_x01777의 존재는 본고의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알려주신 정보임을 밝힌다. 아울러 당 심사위원은 본고의 교정표에 나타난 오류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논자 또한 수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지적된

《표1. 『인왕반야실상론』 교정표》

〈범례〉

1. 단순한 오식(誤植)에 대한 교정은 별도의 비고를 붙이지 않는다.
2. 惠↔慧, 相↔想, 帝↔諦 등 통용 문자의 변경은 생략한다.
3. ‘ ’는 삭제기호, ‘~’는 순서바꿈 기호를 의미하며, 사본상의 표기를 반영한 것이다.
4. ‘교정’의 대괄호([]) 안의 글자는 인용경문이나 잔획, 문맥 등으로 추정한 것이며, 문맥에 의해 추정된 글자는 별도로 ‘?’를 붙인다.
5. ‘교정’의 홑낫표(「 」)는 주석대상인 『인왕경』의 경문을 의미한다.

순번	T85	번각	행	사본	교정	비고
1	160a	□八修 <small>하</small> 法供□□	2	□□修 <small>하</small> 法供□□	[三?寶修 <small>하</small> 法供 <small>하</small> 養行?]	3-4행 “三寶修 <small>하</small> 法 供 <small>하</small> 養行”
2	160a-b	三□□□供 <small>하</small> 養行	3	三□□□供 <small>하</small> 養行	三[寶修 <small>하</small> 法供 <small>하</small> 養行]	잔획으로 추정 가능
3	160b	遍覆大 <small>하</small> 干	6	遍覆大 <small>하</small> 干	遍覆大干	
4	160b	顯共因行	19	顯其因行	顯其因行	
5	160b	明性清淨因行	21	明自性清淨因行	明自性清淨因行	
6	160b	先際教行□	21	先際教行	先際教行	
7	160b	後際果行□□□ □□□于也.	22	後際果行□□□ □□□□也.	後際果行□□□ □□□[行?]也.	
8	160c	所說般若□□言	24	所說般若□□□	所說般若□□□	잔획으로 추정 불가
9	160c	明諸悟人 <small>하</small> 道	37	明諸悟~人 <small>하</small> 道	明諸人悟道	
10	161a	不捨涅槃而奧集用	42-3	不捨涅槃而奧集用	不捨涅槃而[興?]集用	
11	161a	白佛言即釋口言也	43	白佛言已下釋口言也	「白佛言」已下釋口言也	
12	161a	故言不可解	45	故云不可解	故云「不可解」	『인왕경』 (T8, 831a)

사황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13	161a	不可以議議	45	不可以識識	「不可以識識」	”
14	161a	備云何許德行諸善男子深解此如法	46-7	備云何許德行諸善男子深解此經如法	備何許德行，諸善男子深解此經如法？	
15	161a	十三法師行意成就	52	十三法師行德成就	十三法師行德成就	이하 行意→ 行德의 교정은 생략
16	161a	同戒同見同學業	59	同戒同見同學行	「同戒，同見，同學，行…」	『인왕경』 (T8, 831b)
17	161b	人創修入理智	60	此人創修入理智	此人創修入理智	
18	161b	不起立逆	62-3	不起五逆	「不起五逆」	『인왕경』 (T8, 831b)
19	161b	應受菩薩戒	65	應先受菩薩戒	應先受菩薩戒	
20	161b	自侍高貴	68	自侍高貴	自[侍]高貴	『梵網經』 (T24, 1009b)
21	161b	自體能 _口 己身中性	73-4	自體能[解]己身中性	自體能解己身中性	
22	161b	發心興行徹其後際世	78-9	發心興行徹其後際也	發心興行徹其後際也	
23	161c	常八第一義諦	81-2	常入第一義諦	常入第一義諦	
24	161c	向所觀中第一	82	向所觀中第一	向所觀中第一	
25	161c	不繫業未己	82-3	不繫業未亡	不繫業未亡	
26	161c	常授與七	86	常授與人	常授與人	
27	161c	成就熟行德	86-87	成就：熟行德	成就行德	이하 成熟→ 成就의 교정은 생략
28	161c	溲次	87	復次	復次	
29	161c	始登無生相眞證位中	88	始登無生相：眞：證：位中	始登無生位中	
30	161c	無自他相無無相	93	無自他相無無無相	「無自他相無無無相」	『인왕경』 (T8, 831c)
31	161c	遍學方便即是不住道	96	遍學方便即是不住道	遍學方便即是不住道	
32	162a	巧用不證	101	巧用不證	「[功用]不證」	『인왕경』 (T8, 831c)
33	162a	不次	102	不次	「不[沈]」	”
34	162a	常與授人	107	常與~授人	常授與人	

35	162a	住中思中	108-9	住中忍中	「住中忍中」	『인왕경』 (T8, 831c)
36	162a	似四無量心	110	以四無量心	「以四無量心」	''
37	162b	復次明惠道入者者	117-8	復次明惠道人者者：	「復次明慧道人」者	''
38	162b	明惠道入	118	明惠道人	「明慧道人」	''
39	162b	衆德純修	123	衆德純備	衆德純備	
40	162b	還成上明觀也	124	還成上三明觀也	還成上三明觀也	
41	162b	德行階劫故也	124-5	德~行階劫故也	行德階劫故也	
42	162b	明二句經文	126	有二句經文	有二句經文	
43	162b	不施	129	布施	布施	
44	162b	□道品行戒定惠	130-1	此道品行戒定+智惠	此道品行戒定智慧	
45	162b	就五弟地中	134	就五~弟地中	就第五地中	
46	162c	緣達菩薩	136	勝達菩薩	「勝達菩薩」	『인왕경』 (T8, 832a)
47	162c	故云巧論	143	故云+工巧論	故云工巧論	
48	162c	盡苦道無畏	147	盡苦道無畏	盡苦道無畏	
49	162c	早入難勝地. 故云集無量巧德...	149	即入難勝地. 故言集無量功德...	即入難勝地. 故言「集無量功德...	
50	162c	往順忍中	153	住順忍中	...住順忍中」	『인왕경』 (T8, 832a)
51	163a	無有無無	157	無有無無	[故]有無無	『菩薩瓔珞本業經』 (T24, 1014b)
52	163a	現無現量身	162	現無現：量身	現無量身	
53	163a	修道時曷	164	修道時節	修道時節	
54	163a	色身果報	165	色心果報	色心果報	
55	163b	三道中無學之如	173-4	三道中無學之始	三道中無學之始	
56	163b	體寂滅也	175	體寂滅：也	體寂也	

57	163b	冥 <u>摧</u> 無謬動與事會	178	冥 <u>摧</u> 無謬動與事會	冥[權]無謬動與事會	『注維摩詰經』僧肇序 (T38, 327a)
58	163b	靈 <u>照</u> 一切法	178	雙 <u>照</u> 一切法	雙照一切法	『인왕경』 (T8, 832a)
59	163b	無明	186	天明	天[眼?]	
60	163b	佛光三 <u>昧</u> 昧	188	佛光三 <u>昧</u> 昧：	佛光三昧	
61	163b	從初至而未能等無等者	191-2	從初至而未能等無等等	從初至「而未能等無等等」	『인왕경』 (T8, 832b)
62	163c	而無而無想信	200	而：無：而無想信	「而無想信」	''
63	163c	生解脫智也	201	生解脫智也：	「生解脫智」	''
64	163c	薩若 <u>婆</u> 也	204	薩若~ <u>婆</u> 也	薩婆若也	
65	163c	明緣知也，以能無生滅	205	明緣智也，以能無生無滅	明緣智也，「以能無生無滅」	『인왕경』 (T8, 832b)
66	163c	行體 <u>固</u> 堅	207	行體 <u>固</u> ~堅	行體堅固	
67	164a	光揚三法	214	光 <u>揚</u> 三寶	光揚三寶	
68	164a	從天王五今五眼至七難火起	216	從大王五今五眼至七難必起	從「大王吾今五眼」至「七難必起」	『인왕경』 (T8, 833a) ※吾→我
69	164a	應別付囑	218-9	歷別付囑	歷別付囑	285행 (164c)도 동일
70	164a	其時 <u>口</u> 事須 <u>口</u> 護	220	其時節事須假護	其時節事須假護	
71	164a	四方諸集	230	四方諸侯	四方諸侯	
72	164b	中央是出，出主於信	233	中央是土，土主於信	中央是土，土主於信	
73	164b	是明七要	235	即明七要	即明七要	
74	164b	自科行	239-40	自利行	自利行	
75	164b	示果過行	242	示 <u>果</u> ：過行	示過行	
76	164b	龍寶寶神王	243	龍 <u>寶</u> ：寶神王	「龍寶神王」	『인왕경』 (T8, 832c)
77	164b	若王時行常放其前	244	若王時~行常放其前	「若王行時常放其前」	''

77	164b	若王時行常放其前	244	若王時~行常放其前	「若王行時常放其前」	〃
78	164b	如此 _口 異	245	如此有異	如此有異	
79	164b	一供養行也	249	供養行也	供養行也	
80	164b	善惡達順, 應侍 _口 世	250	善惡違順, 歷侍多世	善惡違順, 應侍多世	
81	164c	制御綱	251	制御剛綱	制御剛綱	
82	164c	行行求世禮	254	行乖世禮	行乖世禮	
83	164c	明諸王等	255	明諸仁王等	明諸仁王等	
84	164c	行化無	258	行化 _口	行化[也]	
85	164c	身無爲豎	264	身毛爲豎	「...身毛爲豎」	『인왕경』 (T8,833a)
86	164c	是以國事付弟出家	265	即以國事付弟出家	「即以國事付弟出家」	〃
87	164c	修緣進日出家	266	修勝進日出家	修勝進日「出家」	
88	164c	緣出相	267	勝出相	「...勝出相」	『인왕경』 (T8,833a)
89	164c	世忍初地相	268	三十忍初地相	「三十忍初地相」	〃
90	165a	總列革	277	總列華	總列華	
91	165a	九言億	281	九百億	「九百億」	『인왕경』 (T8,833b)
92	165a	心樹下	283	心樹花	「心樹花」	〃
93	165a	緣進成就	285	勝進成就	勝進成就	
94	165a	明滅法之相	289	明滅~法之相	明法滅之相	
95	165a	怪亂五道	289	怪亂吾道	「...怪亂吾道」	『인왕경』 (T8,833b)
96	165a	舉七誠觀修	290	舉七誠勸修	舉七誠勸修	
97	165b	是正善	299	是止善	是止善	
98	165b	比丘爲作意會	307	比丘爲作 _口 會	「比丘爲作[齋]會」	『인왕경』 (T8,833b) ※ D _x 01777 16행
99	165b	求福如來道法	308-9	求福如外道法	「求福如外道法」	〃
100	165b	恃已威勢, 失脚御於時	310	恃已威勢, 失脚: 御於時	恃已威勢, 失御於時	※ D _x 01777 19행 “御(御)?”
101	165c	自德佛法	313	自壞佛法	自壞佛法	

102	165c	五滅後	321	五滅後	「吾滅後…」	『인왕경』 (T8,833b)
103	165c	接情以事	328	接情~以事	接以情事	
104	165c	而不聽造佛象	328-9	亦不聽造佛象	「亦不聽造佛象」	『인왕경』 (T8,833b)
105	165c	安蘇藉記僧	330	安蘇：籍記僧	「安藉記僧」	''
106	166a	橫與法佛衆僧	335	橫與法~佛衆僧	「橫與佛法衆僧…」	『인왕경』 (T8,833c)
107	166a	永出家正軌	336	乖出家正軌	乖出家正軌	
108	166a	對治道陰也	336	對治道隱也	對治道隱也	
109	166a	我滅度即	337	我滅度已下	「我滅度」已下	『인왕경』 (T8,833c)
110	166a	比丘顯秀寫		+依本按竟比丘顯秀寫	依本按竟. 比丘顯秀寫…	

이상으로 『인왕실상론』의 사본과 대정장본을 비교하여 중복 내용 제외 모두 110건의 교정 소요를 확인하였다. 그중 대정장에서 교정 세 건과 인용 경문에 의한 교정을 제외하면 모두 사본의 내용을 대정장본에서 잘못 번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정장본은 사본의 편집 기호를 모두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의 오식(誤植)이 대단히 많아 그 자체로는 『인왕실상론』의 내용을 분석할 텍스트로 삼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오식을 넘어 텍스트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43번의 “布施(보시, 129행)”를 “不施(불시: 베풀지 않는다, 162b)”로, 97번의 “如外道法(여외도법: 외도의 법처럼, 308행)”을 “如來道法(여래도법: 여래의 도법, 165b)”으로 번각하여 본래의 뜻과 반대가 되어 버리는 경우나 31번에서처럼 특징적 개념어인 “不住道(부주도, 96행)”를 “不往道(불왕도, T85.161c)”로 번각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본 자체의 필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인왕실상론』은 『인왕경』의 계위설인 “十三法師(십삼법사: 습종성, 성종성, 도종성, 십지를 합하여 부르는 개념)”¹⁰⁾ 각각을 “대치하는 방편의 행(對治方便行)”과 “행덕의 완성(成就行德)”으로 나누어 주석하는데, 이 중 “成就行德”은 사본 상에서 “成熟” “行意”로 서사된 경우가 있다. 텍스트의 통일성을 고려하는 한, “成熟”은 아마도 “成就”의 오사(誤寫)일 것이고 “行意”의 “意” 또한 “德”의 이체자(意/德)를 잘못 필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정표의 59번 “天明”의 “明” 또한 맥락상 “眼”의 오사(誤寫)로 보인다.(본고 IV장 참조)

10) 『인왕경』의 현존 주석서 중 “十三法師”라는 용어는 본 문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29번에서는 “無相眞證位”를 “無生位”로, 즉 해석을 바꾼 사례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러한 부분들은 필사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 및 문구의 수정으로 보는 것이 정합적이며, 따라서 현존 『인왕실상론』은 현수라는 인물의 저술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헌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포함한) 필사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몇몇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상기 교정을 통해서 『인왕실상론』의 내용을 해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사본에 나타난 특징적인 기술들을 살펴보자.

Ⅲ. 『인왕실상론』에 인용된 경문의 특징

1. 주석 대상인 『인왕경』의 경문에 관하여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인왕실상론』은 북조에서 찬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전인 『인왕경』 주석서의 일부분이다. 주석의 방식은 하나의 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후, 다시 각 경문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왕실상론』에는 주석 대상인 『인왕경』의 텍스트가 현행본, 즉 대정장본과는 다른 구절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그때 부처께서 왕을 위해 다섯 가지 불가사의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여래가 오인(五忍: 伏忍, 信忍, 順忍, 無生忍, 寂滅忍)을 구족했음을 밝힌 것이다. “세 가지 법신(法身)”이란 드러남에 의해 닦아지는 도가 세 가지 장애를 제거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다.

“다섯 가지 불가사의”란 인도(因道)의 걸림 없음을 밝힌 것이다. “세 가지 몸”이란 과도(果道)를 밝힌 것이다.

「時佛爲王現五不思議者，彰如來具足五忍行也。」「三種法身」者，爲顯所修之道，除三障故顯也。」「五種不思議者，明因道無礙也。」「三種身」者，明果道也。(25-27행, T85.)

이 구절은 『인왕실상론』에서 『인왕경』의 「산화품」을 주석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품을 구절별로 자세하게 해석하는 부분이다.¹¹⁾ 현행 『인왕경』에서 해당 구

11) 해당 설명 바로 앞에서는 “又解(다른 해석)”라는 설명으로 「산화품」에 관한 별도의 해석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인왕실상론』의 「산화품」 주석은 전체과단→ 다른 해석→ 수문해석이라는 다소 기묘

절을 찾아보면 “時佛爲王現五不思議神變(그때 부처께서 왕을 위해 다섯 가지 불가사의한神通 변화를 나타내었다, T8. 831a)”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왕실상론』의 구절을 통해서 『인왕경』의 경문을 추론해보면 “時佛爲王現五不思議三種法身(그때 부처께서는 왕을 위하여 다섯 가지 불가사의함과 세 가지 법신을 나타내었다.)”가 되어야 한다. 『인왕실상론』이 현행 『인왕경』과는 다른 계통의 경문을 주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상응 경문 다음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해당 구절에 대응하는 『인왕경』 경문과 주석 부분을 병기하면 다음과 같다.(인용문의 괄호 숫자는 필자의 임의로 삽입)

그때 부처님께서 왕을 위해 5가지 불가사의한神通변화를 나타내셨다. 하나의 꽃이 무량한 꽃에 들어가고 무량한 꽃이 하나의 꽃에 들어가며, 하나의 불토가 무량한 불토에 들어가고 무량한 불토가 하나의 불토에 들어가며, 무량한 불토가 하나의 털구멍만한 국토에 들어가고 하나의 털구멍만한 국토가 무량한 털구멍만한 국토에 들어가며, 무량한 수미산과 무량한 큰 바다가 겨자씨 가운데 들어가고, 한 부처님 몸이 무량한 중생의 몸에 들어가고 무량한 중생의 몸이 한 부처님의 몸에 들어가며, 육도의 몸에 들어가거나 지·수화·풍의 몸에 들어가니, 부처님의 몸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몸도 불가사의하며 세계도 불가사의했다.

時, 佛爲王現五不思議神變: 一華入無量華, 無量華入一華; 一佛土入無量佛土, 無量佛土入一佛土; 無量佛土入一毛孔土, 一毛孔土入無量毛孔土; 無量須彌·無量大海入芥子中; 一佛身入無量衆生身, 無量衆生身入一佛身·入六道身·入地水火風身, 佛身不可思議, 衆生身不可思議, 世界不可思議. - 『인왕경』(T8. 831a)

- ① “하나의 꽃이 무량한 꽃에 들어가고 무량한 꽃이 하나의 꽃에 들어간다”란, 자리(自利)의 걸림 없는 행위이다.
- ② “하나의 불토가 무량한 불토가 들어가고 무량한 불토가 하나의 불토에 들어간다”란, [불토의 체에 걸림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 ③ “무량한 불토가 하나의 털구멍만한 국토에 들어가고 하나의 털구멍만한 국토가 무량한 털구멍만한 국토에 들어간다”란 광대함에 걸림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한 형태가 되어 버렸다. 마지막 「촉루품」 주석에서도 그러하듯이 “又解”는 본 주석의 내용이 끝난 후에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사본의 형성 과정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비교 고찰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④ “무량한 수미산과 무량한 큰 바다가 겨자씨 가운데 들어간다”란 크고 작음에 걸림이 없음을 밝힌 것이니, 그러므로 “무량한 수미산과 무량한 큰 바다가 겨자씨 가운데 들어간다”라 한 것이다.
- ⑤ “한 부처님의 몸”부터 “지·수·화·풍의 몸에 들어간다”란 정보(正報: 이 경우 부처로서의 몸이라는 과보)를 밝힌 것이다.
- ⑥ “부처님의 몸은 불가사의하다”란 생사를 버리지 않는 행이다.
- ⑦ “중생의 몸이 불가사의하다”란 열반을 버리지 않는 행이다.
- ⑧ “세계가 불가사의하다”란 법계의 걸림없는 행이다.
- ① 「一花入無量花, 無量花入一花」者, 自利無障礙行也.
- ② 「一佛土入無量佛土, 無量佛土入一佛土」者, 直明土體無障礙.
- ③ 「無量佛土入一毛孔土, 一毛孔土入無量毛孔土」者, 明廣大無障礙也.
- ④ 「無量須彌無量大海入一芥子中者」, 明大小無障礙, 故云「無量須彌無量大海入芥子中」.
- ⑤ 「一佛身」乃至「入地水火風身」者, 明正報也.
- ⑥ 「佛身不思議」者, 不捨生死行也.
- ⑦ 「衆生身不可思議」者, 不捨涅槃行也.
- ⑧ 「世界不可思議」者, 法界無障礙行也. - 『인왕실상론』 (28-35행, T85. 160c)

『인왕실상론』에서 해당 구절을 모두 여덟 가지로 해석한 것은 분명 앞의 구절에서 “다섯 가지 불가사의”와 “세 가지 법신”이라는 『인왕실상론』이 의거한 경문의 내용과 상응한다.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불가사의 중 마지막 “佛身”을 정보(正報)로 상징하고 아래의 세 구절을 법신(法身)에 대한 세 가지 해석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문의 내용에 따라 주석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다음의 구절에서도 『인왕실상론』이 의거한 경문이 현행 『인왕경』과는 다른 부분이다.

“28수(宿)가 궤도를 잃는다”부터 “각각 변하여 나타나며 사방의 제후들이 어지럽힌다”란,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이 사방 [어디에서되] 행해지지 않음이다.

「二十八宿失度」乃至「各各變現四方諸侯所以暴亂」者, 良由正教不行於四方也.

- 『인왕실상론』 (229-30행, T85. 164a)

이와 대응하는 『인왕경』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28수가 궤도를 잃나니, 금성(金星)·혜성(彗星)·윤성(輪星)·귀성(鬼星)·화성(火星)·수성(水星)·풍성(風星)·도성(刀星)·남두(南斗)·북두(北斗)·오진(五鎮)의 큰 별과 일체 나라의 주성(主星)·삼공성(三公星)·백관성(百官星) 등이다. 이와 같은 모든 별이 각각 변하여 나타나면 또 이 경을 읽고 설할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의 난이다.

二十八宿失度, 金星·彗星·輪星·鬼星·火星·水星·風星·刀星·南斗·北斗·五鎮大星, 一切國主星, 三公星, 百官星, 如是諸星各各變現, 亦讀說此經, 爲二難也.

- 『인왕경』(T8. 832c)

해당 구절은 『인왕경』 「수지품」에서 붓다의 열반 후 생겨날 일곱 가지 어려움을 열거하는 부분인데, 현행본 경문에는 각각의 어려움을 해설한 다음 “이 경(=인왕경)을 독송하고 해설한다(讀說此經)”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상기 『인왕실상론』의 경문에서는 “讀說此經”는 구절 대신에 “사방의 제후들이 어지럽힌다.(四方諸侯所以暴亂)”는 구절이 등장하며, 흥미롭게도 『인왕실상론』에서는 7년에 대한 주석 중 어느 부분에서도 “讀說此經”이라는 구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인왕실상론』이 주석한 당시의 『인왕경』이 현행본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졌음을 의미하며, “(亦)讀說此經”이라는 구절은 보다 후대에 부여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인왕실상론』은 대정장본 『인왕경』과 자구적으로 다른 구절들이 곳곳에서 보이지만¹²⁾ 대체적인 경문의 내용은 일치하므로 경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일단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2. 『인왕실상론』의 인용 경론들에 관하여

『인왕실상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용 경론을 번역 시기와 함께 병기하면 다음과 같다.¹³⁾

12) 예를 들어 “若王行時, 常放其前”(246행, T85.164b)→ “若王行時, 常於(=放【宋】【元】)其前”(T8. 832c) 혹은 “受持三寶”(258행, T85.164c)→ “護(護=受【宋】【元】【明】)持三寶”(T8. 833a) 등이다. 흥미로운 것은 상기 두 구절과 같이 『인왕실상론』의 경문이 대정장본/고려본이 아닌 송본이나 원본과 호응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는 것인데, 『인왕경』의 계통 문제에 있어 본 문헌의 자료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 이 때 논자가 “인용경론”이라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 즉 ① 인용경론의 제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② 해당 문헌 내에 명확한 대응 구절이 나타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론과 직결되지 않는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참조하라.

- 曇無讖 역, 『大般涅槃經』(T12 no.374, 414년)
- 曇無讖 역, 『菩薩地持經』(T30 no.1581, 418년)
- 曇無讖 역, 『優婆塞戒經』(T24 no.1488, 428년)
- 鳩摩羅什 역, 『維摩詰所說經』(T14 no.475, 弘始 년간(399-416))

※ 승조(僧肇, 384-414)의 서문 포함

- 鳩摩羅什 역, 『十住毘婆沙論』(T26 no.1521, 5세기 초?)
- 疑經 『梵網經』(T24 no.1484, 5세기 중후반?)
- 疑經 『菩薩瓔珞本業經』(T24 no.1485, 5세기 중후반?)

문헌상에서 인용된 경론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론들 중에서 『십지경론』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인왕실상론』은 지론학과의 사상적 영향이 보이는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존 부분에서 지론학과의 소의경론인 『십지경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 문헌에서 활용된 경론들은 모두 지론학과 성립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 경론뿐이다. 물론 『인왕실상론』이 전반부가 결락된 문헌이라는 점에서 인용경론의 범위 또한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십지경론』을 소의경론으로 중시한 지론학과의 여타 문헌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입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 바로 십지(+地)에 대한 해석이다. 『인왕실상론』과 동일한 계통의 문헌으로 추정되는 돈황사본 『본업영락경소』는 주석 대상인 『보살영락본업경』의 42계위설을 해석할 때 여타의 계위에 대해선 『보살영락본업경』 권2의 설명을 인용하면서도, 10지에 대한 해석만은 『십지경론』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었다.¹⁴⁾ 그런데 『인왕실상론』의 경우 10지의 내용을 주석할 때¹⁵⁾ 이와는 달리 『인왕경』과 비슷한 계위설을 지니고 있는 『보살영락본업경』, 그리고 용수(龍樹, 150~250?)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십지경』 주석서인 『십주비바사론』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인왕실상론』의 10지 해석 중 인용경론의 상응구절을 병기하면 다음과 같다.(인용문헌과의 비교를 위해 번역은 생략)

14) 이상민 2018, 62-64.

15) 지전(地前)의 지위인 習種性, 性種性, 道種性에 대한 해석은 두 문헌이 상응한다. 이상민 2018, 73 참조.

《표2. 10지의 해석에 관한 『인왕반야실상론』의 문구와 대응경론》

1) 『보살영락본업경』, 『십주비바사론』에의 인용

계위	『인왕실상론』	대응경론
초지	경론 대응부분 없음	
제2지	「復次德慧菩薩者, 是離垢菩薩也. 「以四無量心」者. 自修十善, 教人行十善, (112-3행, T85, 162a)	金剛海藏法寶, 所謂自行十善, 教人行十善. - 『菩薩瓔珞本業經』 권1(T24, 1014c) ¹⁶⁾
제3지	「復次明慧道人」者, 明第三地菩薩廣博多學, 爲衆生說法, 能作照明, 故名明慧道人. (117-8행, T85, 162b)	第三地中, 廣博多學, 爲衆說法, 能作照明, 故名爲明地. - 『十住毘婆沙論』 권1(T26, 23a)
제4지	「爾炎聖覺達菩薩」者, 此四地大士順忍下品. 布施持戒多聞轉增, 威德熾盛, 名爲炎地. (128-9행, T85, 162b)	第四地中, 布施持戒多聞轉增, 威德熾盛, 故名爲炎地. - 『十住毘婆沙論』 권1(T26, 23a)
	「住須陀洹位」者. 經云「秦言觀明炎地」. (131-2행, T85, 162b)	須陀洹(秦言觀明炎地) - 『菩薩瓔珞本業經』 권1(T24, 1011b)
제5지	「勝達菩薩於順道忍」者, 五地大士順忍中品. 功德力盛, 一切諸魔不能沮壞, 故名難緣地. (136-7행, T85, 162c)	第五地中, 功德力盛, 一切諸魔不能壞, 故名難勝地. - 『十住毘婆沙論』 권1(T26, 23a)
제6지	現前地者, 『毘婆沙』云: 障魔事, 以菩薩道法皆現在前, 故云名現前地. (154-5행, T85, 162c-163a)	第六地中, 障魔事已, 諸菩薩道法皆現在前, 故名現前地. - 『十住毘婆沙論』 권1(T26, 23a)
	「作中道觀」者, 法界因緣, 寂滅無二, 故云 「作中道觀」. 「盡三界集因集業一切煩惱」者, 因緣集故謂之有, 非曰有是有, 因緣散故謂之無, 非曰有是無, 故有無無. 故云「盡三界集因集業一切煩惱故」. (155-8행, T85, 163a)	法界因緣寂滅無二, 故名現前地. - 『菩薩瓔珞本業經』 권2(T24, 1018a) 因緣集故謂之有, 非曰有是有. 因緣散故謂之無, 非曰有是無. 故有無無. - 『菩薩瓔珞本業經』 권1(T24, 1014b)
	「證阿那含位」者. 秦言薄流現前地也. 「復以九阿僧祇劫集照明中道」者. 行之階劫. 作十種照十二因緣觀. 故云「復以九阿僧祇劫集照明中道故」. (159-161행, T85, 163a)	阿那含(秦言薄流現前地). - 『菩薩瓔珞本業經』 권1(T24, 1011b) 所謂十二因緣, 十種照: (하략) - 『菩薩瓔珞本業經』 권1(T24, 1015a)

16) 이와 매우 유사한 구절이 『大智度論』 권25 “自行十善, 亦教人行十善, 讚歎行十善法,”(T25, 690b)에도 등장 하지만 해당 부분이 제2지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것은 『보살영락본업경』 쪽이므로 『인왕실상론』의 인용 또한 『보살영락본업경』의 구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7지	<p>「玄達菩薩」者, 毘婆沙云: 去三界遠近法王位, 故云玄達菩薩. (163행, T85.163a)</p> <p>「滅三界習因業果」者, 無障礙智, 觀三界二習色心果報, 盡無遺餘. 故云「滅三界習因業果」. (165-6행, T85.163a)</p> <p>「羅漢」者, 秦言過三界遠行地也. (169-170행, T85.163a)</p>	<p>第七地中, 去三界遠近法王位, 故名深遠地. - 『十住毘婆沙論』권1(T26.23a)</p> <p>七盡果報無障無礙智. 所謂以三空智觀三界二習, 色心果報滅無遺餘. - 『菩薩瓔珞本業經』권1 (T24.1015a-b)</p> <p>阿羅漢(秦言過三有遠行地) - 『菩薩瓔珞本業經』권1 (T24.1011b)</p>
제8지	<p>「羅伽位」者, 秦云變化生不動地. (180행, T85.163b)</p> <p>「心心相應常入見佛三昧」者, 運運寂滅, 自然流入薩婆若海. (180-1행, T85.163b)</p>	<p>阿尼羅漢(秦言變化生不動地) - 『菩薩瓔珞本業經』권1(T24.1011b)</p> <p>心心寂滅法流水中, 自然流入薩婆若海. - 『菩薩瓔珞本業經』권1(T24.1014c)</p>
제9지	<p>「慧光神變」者, 明九地菩薩. 其慧轉明, 調柔增上, 故云慧光神變. (183-4행, T85.163b)</p> <p>「以大願力」者, 佛藏變通藏, 以一心中一時行, 故言以大願力.</p> <p>「常生一切淨土」者, 明嚴土化物也.</p> <p>「萬阿僧祇劫集無量佛光三昧」, 明行之階劫也.</p> <p>「而能現百萬」乃至「諸佛神力」者, 無量大千世界中, 作佛形也.</p> <p>「住婆伽梵位」者, 秦言慧光妙善地. (187-190행, T85.163b)</p>	<p>第九地中, 其慧轉明, 調柔增上, 故名善慧地. - 『十住毘婆沙論』권1(T26.23a)</p> <p>一切佛藏一切變通藏, 已一心中一時行, 無量大千世界中作佛形. - 『菩薩瓔珞本業經』권1(T24.1015b)</p> <p>「阿那訶(秦言慧光妙善地)」 - 『菩薩瓔珞本業經』권1(T24.1011b)</p>
제10지	경론 대응부분 없음	

2) 기타 경전에서의 인용

구분	『인왕실상론』	대응경론
초지	<p>「內論」者, 經云: 一者顯示正因果, 二者顯示所作不壞不作不來. 故云內論.</p>	<p>此五種明處菩薩悉求. 佛所說者, 名為內論. 略說二種. 一者顯示正因果. 二者顯示所作不壞不作不受 (=來【聖】【知】).</p>

<p>초지</p>	<p>「外道論」者, 亦有二種. 一者能屈他論. 二者自申己義. 故云外道論. 「藥方論」者, 有四種. 一者顯示善知病. 二者顯示病因. 三者顯示能除已起之病. 四者顯示已除之病令不重起. 故云藥方論. 「工巧論」者, 顯示種種世業. 如金鐵師木師等及餘種種明處. 故云工巧論. 「呪術論」者, 顯示巧便言辭. 故言呪術, 「我是一切智人」者, 如是菩薩. 求五明處. 爲無上菩提大智衆具究竟滿, 故名爲一切智人. (138-145행, T85, 162c)</p>	<p>因論亦(=有【宋】【元】【明】【宮】) 二種. 一者能屈他論. 二者自申己義. 聲論有二種. 一者顯示界色. 二者顯示巧便言辭. 醫方論有四種. 一者顯示善知病. 二者顯示病因. 三者顯示能除已起之病. 四者顯示已除之病, 令不重起. 世工業處智(=論【宋】【元】【明】【宮】)者, 顯示種種世業成就. - 『菩薩地持經』권3 (T30, 903a) 世工業處智者, 謂種種事業. 如金師鐵師水師等, 及餘種種明處所攝. - 『菩薩地持經』권3(T30, 903a) 如是菩薩求五明處, 爲無上菩提大智衆具究竟滿故. - 『菩薩地持經』권3(T30, 904c)</p>
<p>제7지</p>	<p>「常行三空門」者, 無有十相, 名爲無相. 於二十五有不作願求, 故云無願. 無二十五有故曰空也. (170-171행, T85, 163b)</p>	<p>空者, 於二十五有不見一實, 無作者, 於二十五有不作願求, 無相者, 無有十相. - 『大般涅槃經』권25(T12, 511a-1)</p>
<p>제8지</p>	<p>「淡泊住於無住之住」者, 法身無像, 殊形並應, 釋上「無身身」. 「在有常修空處空常萬化」者, 冥權無謬動與事會, 釋上「無相相」. (176-8행, T85, 163b)</p>	<p>法身無象而殊形並應 - 승조 유마경서(T38, 327a) 冥權無謀而動與事會 - 승조 유마경서(T38, 327a)</p>
<p>제10지</p>	<p>「觀佛菩薩住寂滅忍」者, 明佛及菩薩同用此忍也. (198행, T85, 163c)</p>	<p>寂滅忍, 佛與菩薩同用此忍入金剛三昧」 - 『인왕경』(T8, 826c)</p>

상기 도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왕실상론』은 오명론(五明論)이나 삼해탈문(三解脱門)과 같은 특정 개념 해석에 있어서는 『보살지지경』이나 『열반경』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왕경』에서 설해진 10지의 해석 자체는 기본적으로 『십주비바사론』과 『보살영락본업경』의 해석을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본 문헌은 단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실전된 부분에서 『십지경론』을 인용하고 있을 가능

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문헌이 지론학과에서 저술된 문헌 이라면 지론학과의 사상적 중핵인 10지를 논의하는 부분에서 『십지경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 문헌이 작성될 때 모종의 맥락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이상으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인왕실상론』의 인용경론 중 『범망경』을 제외한 모든 경론이 법상 찬 『십지론의소』, 그 중에서도 권3에서 인용되거나 의용된 경론 중에 포함된다는 점이 흥미롭다.¹⁷⁾ 그 중 『우바새계경』이나 『십주비바사론』을 인용한 구절을 지닌 지론문헌은 논자가 확인한 한 『십지론의소』가 유일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북조의 경록을 정리한 오오타케에 따르면, 북조의 경록은 당시 존재하는 모든 경론을 포함한 기록물 이라기보다는 “지방적 경록”, 즉 당시 북조에서 유통되었던 경론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는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⁸⁾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 적용한다면 유사한 인용 경론군을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 동일한 연구 집단 내에서 작성되었다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인왕실상론』은 짧지만 『십지론의소』와 동일한 문장이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왕실상론】

[경문의 “항상 삼공(三空)의 문을 행한다”에서] “문”이란 체(體)가 통하여 걸림없음을 “문”이라고 한다.

「門」者, 體通無礙, 名之爲「門」.(173행, T85. 163b)

【십지론의소】

[경론의 “다라니문(陀羅尼門)”에서] 체(體)가 통하여 걸림없음을 “문”이라고 한다.

體通無礙名「門」.(T85. 775b)

물론 이러한 짧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 두 문헌의 상관관계를 완전하게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두 문헌이 비슷한 범위의 경론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

17) 『십지론의소』의 인용문헌에 대해서는 김천학 2016, 21 참조. 해당 연구에서는 『보살영락본업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二對解惑相混障, 以辨道流離垢地.” 『십지론의소』 권1(T85. 766c)과 같이 『보살영락본업경』(T24. 1011b)의 개념이 인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살영락본업경』 자체가 여러 문헌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십지론의소』에서도 이것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8) 大竹焄 2017b, 869.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본 문헌과 『십지론의소』 사이에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앞서 이상민이 『본업영락경소』를 중심으로 『인왕실상론』과 『십지론의소』의 상관관계를 논했다면,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인왕실상론』과 『십지론의소』 또한 모종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IV. 『인왕실상론』에 나타난 지론교학의 영향

본 장에서는 이시이가 지적한 구절 이외에 『인왕실상론』에 나타난 지론교학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본 문헌에는 이시이가 지적한 “眞實緣集”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여타의 지론 사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론학파의 사상적 원류가 되는 6세기 초반의 경론에 의거한 개념들이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인왕실상론』에 반영된 지론학파의 사상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적할 것은 본 문헌에는 지론학파에서부터 도입되어 이후 동아시아 불교의 불신설로 자리잡은 삼신(三身), 즉 응신(應身), 보신(報身), 법신(法身)의 개념이 반영된 구절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인왕실상론』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난다.

…… 법공양의 행을 담음……을 밝힌 것이다.

반야배라밀……은 인왕(仁王) 등이 보불(報佛)이라는 삼보(三寶)를 관하고 법공양의 행을 담음을 밝힌 것이다.

[~에서] “하나의 꽃자리를 이룬다”란 여러 왕들이 법불(法佛)이라는 삼보(三寶)를 관하고 법공양의 행을 담음을 밝힌 것이다.

明□□□□□□□□修法供□□□□□□□□□□□□□□□□

般若波□□□□□□□□□□明仁王等觀報佛三寶, 修法供養行.

□□□□□□□□至「成一花臺」, 明諸王等觀法佛三寶, 修法供養行.

- 『인왕실상론』(1-4행, T85. 160a-b)

상기 구절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분이 삼신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상기 인용문의 “보불(報佛)”이라는 개념이 그 근거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불신설이 진신(眞身)과 응신(應身)의 2중 불신에서 3중 불

신으로 확장된 것은 바로 보신(報身, 과보로서의 불신)이라는 개념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¹⁹⁾ 상기 문헌에서도 분명하게 “報佛”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삼신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존 문헌 중에서는 응불(應佛=응신)에 관한 주석 부분이 결락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윗 구절의 잔존 부분에 “修法供”이라는 세 글자가 나타나며, 이것이 아래 “修法供養行” 중 세 글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해당 결락 부분의 앞뒤는 “…… 觀應佛三寶, 修法供養行(응불의 삼보를 관찰하고, 법공양의 행을 닦음을 밝힌 것이다).”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왕실상론』은 지론학파의 종조들이 한역한 경론, 혹은 그들의 강의에 의해 알려진 삼신설을 이미 수용한 단계에서 작성된 문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다음으로 제시할 구절은 “삼중세간(三種世間)”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신통변화” 아래는 세 가지 세간을 보인 것이다.

[첫째,] “하나의 꽃이 무량한 꽃에 들어간다”부터 “무량한 수미산과 무량한 대해개 겨자 씨 안에 들어간다”는 동체(同體)의 정도이니, 이것이 정각세간(正覺世間)이다.

둘째, “하나의 부처님 몸이 무량한 중생의 몸에 들어간다”부터 “육도(六道)의 몸에 들어간다”는 스물다섯 가지 존재양태를 지닌 중생세간(衆生世間)이다.

[셋째,] “지수화풍에 들어간다”는 국토세간(國土世間)을 밝힌 것이다.

“부처님 몸의 불가사의”란 앞의 정각세간에 대한 설명을 맺는 것이다.

“중생의 불가사의”란 앞의 스물다섯 가지 존재 양태를 지닌 중생세간에 대한 설명을 맺는 것이다.

“세계의 불가사의”란 앞의 국토세간에 대한 설명을 맺는 것이다.

19) 지론학파에서 이루어진 삼신설에 대한 논의는 大竹 쥘 2017b 참조.

20) 당시 삼신설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문헌은 508년(正始 5년)에 번역된 『묘법연화경우과제사(妙法蓮華經優波提舍, T26 no.1520)』로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妙法蓮華經論優波提舍』 권1, “示現三種佛菩提 :

一者應化佛菩提, 隨所應見而爲示現故. 如經「皆謂如來出釋氏宮, 去伽耶城不遠, 坐於道場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二者報佛菩提, 十地行滿足得常涅槃證故, 如經「善男子! 我實成佛已來無量無邊百千萬億那由他劫」故.

三者法佛菩提, 謂如來藏性淨涅槃常恒清涼不變故, 如經「如來如實知見三界之相, 乃至不如三界見於三界」故.”(T26, 18c) 현존 『妙法蓮華經優波提舍』는 누나마제 역본과 보리유지 역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후자가 전자를 수정한 문헌일 뿐 동일한 문헌이다. 누나마제 역이 원본일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大竹 쥘 2011, 111-112 참조.

「神通變化」已下, 表三種世間.
 從「一花入無量花」乃至「入芥子中」者, 明同體淨土, 是正覺世間.
 二, 從「一佛身入無量衆生身」乃至「六道身」者, 是二十五有衆生世間.
 「入地水火風」者, 明國土世間.
 「佛身不可思議」者, 結上正覺世間.
 「衆生不可思議」者, 結上二十五有衆生世間.
 「世界不可思議」者, 結上國土世間. - 『인왕실상론』(9-13행, T85. 160b)

이 구절에서 『인왕실상론』에서 언급된 “세 가지 세간”은 각각 정각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이 된다. 이 중 “정각세간”이라는 개념은 현존 문헌 중 『십지경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다.

[경문의 “자재함을 얻는다”란, 이 보살이 이와 같이 기세간(器世間), 중생세간(衆生世間),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이라는 세가지 행을 수행하여 열 가지 자재함을 얻는 것이다.
 「得自在」者, 是菩薩如是修行, 器世間, 衆生世間, 智正覺世間, 三種自在行故. 得十自在.
 - 『十地經論』권10(T26. 183c)

“정각세간”이란 본래 세간과는 구분되는 부처의 정각(正覺, tib.ye shes mngon par dzogs par byang chup pa, *jñānābhisambodhi “지혜의 현등각現等覺”²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역 『십지경론』에서 “世間”이 붙어 번역되었고 이후 기세간과 중생세간을 합쳐 “삼중세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²²⁾ 따라서 『인왕실상론』에서 해당 구절의 내용은 『십지경론』을 통해 형성된 교학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구절에는 『십지경론』의 “기세간(器世間)”이라는 용어 대신 “국토세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오히려 구마라집 역 『대지도론(大智度論, T25 no.1509)』이나 『십주비바사론』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세간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중세간(五衆世間), 둘째는 중생세간, 셋째는 국토세간이다.

21) 大竹晉 2005, 483.

22) 望月信亨(編) 1957, 권2 1595-6 “三種世間” 항목 참조.

世間有三種：一者，五衆世間。二者，衆生世間，三者，國土世間。 - 『대지도론』(T25,546 b-c)
세간은 두 가지가 있다. 국토세간과 중생세간이다.

世間有二種。國土世間，衆生世間。 - 『십주비바사론』 권3(T26,35a)

이렇게 본다면 『인왕실상론』의 해당 구절은 지론학과 성립 이전 구마라집이 전한 중생세간과 국토세간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십지경론』을 통해 도입된 [지정각세간의 개념을 추가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경문이나 이론에 새롭게 등장한 교학 개념이 추가되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문헌의 작성 당시 이루어진 사상적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인왕실상론』에서 정각세간을 포함한 삼중세간 개념이 나타난다는 것은 본 문헌의 작성 이전에 이미 『십지경론』의 번역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²³⁾

V. 결론과 이후의 과제들

이상으로 『인왕실상론』의 텍스트 교정을 포함하여, 당 문헌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삼안(三眼)”에 대한 해석도 보리유지의 강의록인 『금강선론』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구절이다: “「三眼」者，總舉三眼。「色」者，明天眼見障外色也。「空」者，慧眼鑒也。「見」者，肉眼障內也。” 『인왕실상론』(187-8행, T85, 163b)

육안, 천안, 혜안을 통칭하는 “삼안”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여러 경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천안에 대해 “경계 바깥(障外)을 본다”거나 육안에 대해 “경계 안(障內)”을 본다고 설명하는 것은 『금강선론』 다음의 구절과 호응한다: “明凡夫之人肉眼，但見因緣和合虛妄境界。(중략) 天眼亦照因緣和合虛妄境界，皆見障外之色。” 『금강선론』 권8(T25, 852b) 특히 천안에 대한 해석은 자구적으로도 호응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만약 『금강선론』의 설에 기인한다면, 해당 사본의 작성연대는 『금강선론』의 찬술년도인 534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육안과 천안을 “장내”와 “장외”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이미 『대지도론』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肉眼不能見障外事，又不能遠見，是故求天眼。” 『대지도론』 권39(T25, 348a) 따라서 『인왕실상론』의 상기 구절이 반드시 『금강선론』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금강선론』이 인도의 교학과 동아시아에서 자생한 교학이 혼재되어 있는 간(間) 성격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설명은 『대지도론』에서 출발하여 당시 북조에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이 『금강선론』에도 반영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은 본고의 고찰에서 일단 제외한다.

- 1) 현존 대정장본에 수록된 『인왕실상론』은 사본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교정표를 작성하였으며 총 109건의 교정소요를 확인하였다.
- 2) 『인왕실상론』에서 주석하고 있는 『인왕경』의 경문을 현행본 『인왕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경문이 나타난다. 이는 『인왕경』 또한 전승과정에서 텍스트의 변천이 있었거나 북조에서 유통되었던 또 다른 형태의 『인왕경』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3) 『인왕실상론』은 십지(十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십지경론』이 아닌 『십주비바사론』과 『보살영락본업경』을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다. 적어도 현존 부분에서는 『십지경론』에 대한 직접 인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4) 『인왕실상론』의 인용경론군은 또 다른 지론문헌인 『십지론의소』의 인용경론군 안에 대부분 포함된다. 특히 『우바새계경』과 『십주비바사론』을 함께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현존 지론문헌 중 『십지론의소』와 『인왕실상론』뿐이다. 또한 『인왕실상론』에는 『십지론의소』와 동일한 자구의 개념 해석도 등장하는데, 이 또한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왕실상론』과 『십지론의소』 사이에 모종의 사상적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 5) 『인왕실상론』은 『십지경론』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지론학과에서 형성된 교학적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삼신(三身)”과 “삼중세간(三種世間)”이라는 지론학과와의 교학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논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인왕실상론』이 찬술된 이후에 같은 교학 그룹에서 『본업영락경소』가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논자가 참고하지 못했던 이시이의 연구, 그리고 본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지론교학의 영향 등을 보았을 때 일단 두 문헌의 성립 순서에 대한 가설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인왕실상론』과 『본업영락경소』에 나타나는 상응 구절을 대조해보면 대개 전자가 후자를 거칠게 축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두 문헌이 모두 지론학과와의 영향 하에 찬술된 것이라면 『본업영락경소』가 찬술된 후 『인왕실상론』이 저술된 것으로 보아도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왕실상론』의 내용에 의해서 『본업영락경소』의 구절이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는 만큼 논자의 가설 중 두 문헌을 관통하는 제3의 교학적 전승을 상정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²⁴⁾ 또한 “실상

론”이라는 문헌의 명칭, 인용경론군, 그리고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적인 구절을 고려한다면 본 사본이 지론교학의 영향하에 성립된 문헌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의 것이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왕실상론』과 『본업영락경소』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헌 내에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무하다.

마지막으로 『인왕실상론』이 보여주는 북조 불교의 다양한 양상, 특히 『십지경론』에의 인용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본 자체가 단간이며 그 구성에 있어서도 완전히 체계적이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존 문헌이 어떠한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론학파의 문헌이라면 십지의 해석에 있어 『십지경론』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어쩌면 이것은 북조불교계에서 이루어진 교학 연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론학과”를 6세기 북조불교를 대표하는 표제어로 볼 때, 그러한 표제어는 당대의 수많은 지적 전통을 단 하나의 흐름으로 간주하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오히려 이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지 않는 사상적 특색들이야말로, 당시 북조불교의 활발한 교학 연구 양상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24) 이상민 2018, 73.

25) 본고는 어디까지나 『인왕실상론』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해당 문헌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하였다. 특히 『인왕실상론』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성되어진 『인왕경』의 주석서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후대 길장이나 지의, 원측 등에 의해 저술된 『인왕경』 주석서와의 비교 및 고찰이 요청된다. 또한 결론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왕실상론』의 주석 경문이 현행본과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경문을 돈황사본으로 전해지는 남북조 시대 『인왕경』의 경문, 그리고 상기 『인왕경』 주석서에서 제시된 경문들과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면과 역량의 한계로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인왕경』을 둘러싼 동아시아 불교의 지적 전통을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1차 자료

- T: 『大正新脩大藏經』, 東京:大正一切經刊行會, 1924-1934.
- 磯部彰(編), 『中村不折舊藏禹域墨書集成: 台東區立書道博物館所藏』, 東京: 二玄社 2005.
- 俄羅斯科學院東方研究所(編), 『俄藏敦煌文獻8: Ⅱ X01185-Ⅱ X0200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附屬圖書館(編), 『大正藏·敦煌出土佛典對照目錄 暫定第3版』, 東京: 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附屬圖書館, 2015.

2차 자료

김천학

2016 「T85, No.2799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의 텍스트 문제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26집.

이상민

2018 「돈황사본 본업영락경소(本業瓔珞經疏)(Stein no.2748)의 사상사적 위치」, 『불교학연구』 제56호.

青木隆

1987 「中國地論宗における緣集說の展開」, PHILOSOPHIA 75.

2000 「地論宗の融即論と緣起說」, 『北朝隋唐中國佛教思想史』, 京都: 法藏館.

2010 「敦煌寫本にみる地論教學の形成」, 『地論思想の形成と變容』, 東京: 國書刊行會.

池田將則

2013 「北朝「地論宗」における佛典注釋の一類型: 敦煌寫本 『十地經論疏』(BD06378)의 紙背に書寫された三つの斷片, 某經疏・『仁王疏』・『維摩疏』と淨影寺慧遠撰述の諸經論疏との比較を通して」, 『불교학연구』, 제36호.

石井公成

1996 『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大竹晉

2011 『新國譯大藏經釋經論部18 法華經論・無量壽經論(他)』, 東京: 大藏出版.

2006 『新國譯大藏經釋經論部17 十地經論II』, 東京: 大藏出版.

2017a 「地論宗の佛身說」, 『地論宗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2017b 「北朝經錄斷片集成」, 『地論宗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岡本一平

2012 「淨影寺慧遠の著作の前後關係に關する試論」, 『地論思想の形成と變容』, 東京: 國書刊行會.

2017 「淨影寺慧遠の『別章』について」, 『地論宗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矢吹慶輝

1980(1930) 『鳴沙餘韻: 敦煌出土未傳古逸佛典開寶 編著 1: 解説編』, 京都: 臨川書店.

妻木直良

1926 「燉煌本仁王般若實相論に就て」, 『宗教研究』 3-2.

望月信亨(編)

1957 『(望月)佛教大辭典. 2, コ-ン』,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A Basic Survey of *Renwangbore-shixianglun*

Sangmin LE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submit the doctrinal features of a Dunhuang manuscript named *Renwangbore-shixianglun* (『仁王般若實相論』, henceforth “RBS”), which is a commentary on a Chinese apocryphal sūtra *Renwang-Jing* (『仁王經』).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Compared to the original manuscript, the printed version of RBS in Taisho edition contains a substantial amount of erroneous passages. In total, 110 errors have been verified through the textual analysis.

2) The *Renwang-Jing* in the RBS contains slightly different passages from the present *Renwang-Jing*. This suggests that different versions of *Renwang-Jing* may have existed at the time of composing RBS, approximately the early 6th C.E.

3) RBS mentions doctrin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ose introduced by the Dilun Masters, such as Three Bodies (三身) or Three Secular Worlds (三種世間). This implies that RBS was written under the ideological influence of the Dilun School.

4) Unlike other Dilun texts, however, RBS contains no passages quoting

from *Shidijing-lun* (『十地經論』), which was the core reference of the Dilun School thought. Even in the section that explains the ten stages (十地) of the Bodhisattva, RBS refers to texts that existed before the *Shidijing-lun* was translated, such as *Pusayingluobenye-Jing* (『菩薩瓔珞本業經』) and *Sizhu-piposha-Lun* (『十住毘婆沙論』. **Daśabhūmika-vibhāṣā*).

5) The list of texts quoted in RBS shows a close affinity to that of another Dunhuang manuscript *Shidilun-yishu* (『十地論義疏』). Especially the *Youposejie-Jing* (『優婆塞戒經』, **Upāsaka-sīla-sūtra*) and the *Sizhu-piposha-Lun* are cited in these two texts exclusively. Moreover, these two texts share an identical passage that cannot be found elsewhere. These facts suggest that RBS and *Shidilunyishu* were written in the same doctrinal lineage.

Key words: Dunhuang Manuscript, The Dilun School, *Renwangbore-shixianglun*, *Renwang-Jing*, *Pusayingluobenye-Jing*, *Sizhu-piposha-Lun*

2018년	11월 15일	투고
2018년	12월 5일	심사완료
2018년	12월 7일	게재확정